

군 복무 중의 자기개발이 대학 복학생의 자기주도학습과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상혁
우석대학교 국방정책학과 교수

Effect of Self-Development during Military Service on Returning University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Sang-Hyeok Cho
Professor, 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Policy, Woosu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대학생이 수행한 자기개발이 복학 후의 자기주도학습과 취업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전국에서 약 15개 대학의 2, 3, 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집락무선표집을 이용하여 323명을 선정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빈도분석, 독립 t-test, one way Anova,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복무후 복학한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자기개발경험에 따른 자기주도학습은 대학소재지, 학년, 군복무시 자기개발정도, e-learning 수강정도, 원격강의 이수학점, 자격증취득유무, 지원비용유무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군복무후 복학한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자기개발경험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은 대학소재지, 학년, 군복무시 자기개발정도, e-learning 수강정도, 원격강의 이수학점, 자격증취득유무, 지원비용유무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군복무시 자기개발경험은 복학 후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및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자기개발, 자기주도학습, 취업준비행동, 군복무, 군복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effect of soldiers' self-development during military service on returning university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The object of this study are 323 students among second, third and fourth graders of about 15 universities' nationwide by online stratified clusterrandom sampling. SPSS 25.0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done. The rusult are as follows :First, self-directed learning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s have meaningful differences in university location, grade, degree of self-development during military service, degree of self-development during military service, self-development during military service, e-learning study during military service, gaining credits during military service, gaining national licence during military service and receiving money for self-development during military service. Second, The experience of self-development during military service has meanigful difference in returnig university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Key Words : Self-Development, Self-directed Learning, Job Preparation Behavior, Military Service and University Students Returned after Military Service

*Corresponding Author : Sang-Hyeok Cho(hj95jh99@naver.com)

Received January 14, 2020
Accepted February 20, 2020

Revised February 3, 2020
Published February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한민국 남자라면 10대 후반부터 20대에 누구에게나 병역의 의무가 부여된다. BTS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 손흥민 선수의 군대 면제 여부로 불거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의 메달리스트의 병역 면제 등 병역에 관련된 이슈가 지난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유로 2년여의 군생활로 인한 경력단절이 생명력 단축, 실력저하 등 부작용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여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이 시기에 국가를 위한 헌신과 봉사라는 사명감으로 수행해야 하는 군 복무는 과거에도 '학업과 경력 단절', '경력과 스펙 쌓기 곤란함', '인생의 정체기'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나날이 심해져 지난해 문제인 정부가 모병제를 고려할 필요가 도래하였다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에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군 복무를 '생산적인 군 복무'로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 복무 및 그 기간을 자신의 꿈과 미래를 가꾸어 나가는 기회의 장으로 개인 학습의 연장선으로, 경력축적의 기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금의 군복무 환경이나 여건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최우선적 요구도 학업·역량개발 등 자기개발 분야이며, 그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재 국방부는 사병들의 사회와의 소통, 자기개발 기회 확대 등을 위해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던 군대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군대문화의 변화는 2006년의 '병영문화개선'에서 마련되기 시작되었다. 첫째, 참여정부는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대학교를 휴학하고 군대에 간 남성들이 공부해서 학점을 이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둘째, 새로 설치한 인터넷 사랑방에는 '해커스토의 등'을 수강할 수 있는 'e-learning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셋째, 각 부대에 '진중도서관'들이 설립되고 '진중문고'가 보급되었다. 한편으로는 병사들의 생활환경이 변화되었는데 먼저 학습을 위한 연등시간을 확보해주었고, 병사들의 근무와 복귀를 출근과 퇴근의 개념으로 바꾸어 퇴근 이후에는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일선부대들에서 자격증 시험이나 영어시험 응시를 위한 휴가, 외박, 외출을 허용하기 시작하였다[1]. 그 이후에도 2012년의 '병영문화선진화'와 2015년의 '병영문화 혁신'을 거쳐 2018년의 '국방개혁 2.0'에 이르기까지 '평일 일과 전후 및 휴일에 개인생활 보장', '장병 사적 지시·운영 근절 조치' 등이 이

루어져 '자율과 책임이 정착된 병영문화'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변화된 병영문화는 자기개발을 실시하는 장병들이 제한사항 없이 지속성을 보장받도록 하여 자기개발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언론보도[2]에 의하면 현재 국방부는 군 복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 재학 중 입대한 장병들에게 다음과 같은 장병 자기개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학점취득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 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제도'는 참여대학을 2019년 현재 154개로 늘렸으며, 2019년부터 수강료의 50%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2019년에 1만 5374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성과도 거뒀다. 또 군 복무경험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도'는 2017년 관계법령을 개정해 2019년에 처음으로 12개 대학에서 시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12개 대학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자기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2019년 5만 원, 2020년 10만 원)하는 '병사 자기개발 비용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장병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어학시험 응시로 할인혜택', '군인상 특별어학시험' 등도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 전공·적성·취업과 연계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지원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82개 종목에 대해 군 내 검정을 연 2회 주관해 시행하고 있다.

군 복무 중 자기개발에 관한 선행연구로 2000년대에 군 복무를 했던 엘리트남성들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2000년대 중반에 시작된 병영문화개선과 군 인적자원개발 과정에서 극소수 남성엘리트들만이 성공적인 자기개발을 할 수 있었기에, 이것이 계급을 재생산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했다고 분석하고 있는 연구[1],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감사성향, 자기효능감, 자아낙관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기개발이 전투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는 연구[3], 현역 사병들의 자기개발 실태와 사병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과의 효율적인 협력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4] 및 A사단에서 실시한 '목표지향적 자기개발프로그램'이 병사들의 목표관리와 자아존중감, 군 생활만족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는 연구[5]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현재까지의 군 복무 중 자기개발에 관한 연구들은 모두 그 연구범위를 사병의 군 복무 기간에 한정하여 사병의 자기개발 실태와 요구사항,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관군 협력방안, 자기개발이 군 복무 중 사병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있고, 군 입대한 대학생이 군 복무

중 실행한 자기개발활동이 군 제대 후 대학에 복학하여 대학생활을 할 때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대학생이 군 복무 시 수행한 자기개발이 군 제대 후 복학한 후 대학학업 수행과정에서의 자기주도 학습과 취업준비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군 복무 후 복학한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자기개발경험에 따른 자기주도학습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군 복무 후 복학한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자기개발경험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군 복무 시 자기개발경험이 복학 후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및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 연구는 군 복무 중 자기개발과 각종 자기개발 지원프로그램이 대학 복학 후의 학업수행과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군 복무 중의 자기개발이 군 제대 후 대학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면 군에서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사회의 변화와 사병들의 요구에 맞게 보완할 때 필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약 15개 대학의 2, 3, 4학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집락무선표집을 이용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미디어 설문지를 제작한 후 설문 대상자에게 링크 주소를 모바일(카카오톡)로 전송하여 353명에게 응답을 받았으나, 본 연구에서 변인들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마치고 돌아온 학년이 많은 2,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1학년을 제외한 2, 3, 4학년 323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대를 다녀온 복학생들이 240명으로 군대에서의 자기개발이 복학 후의 자기주도학습과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level	frequency	ratio
location of college	location of college	99	30.7
	non-capital area	224	69.3
grade	2grade	93	28.8
	3grade	111	34.4
	4grade	119	36.8
major	cultural & social sciences	153	47.4
	education	18	5.6
	natural & engineering sciences	102	31.6
	pharmacy, medicine & nursung	15	4.6
	art & physical education	35	10.8
military service	Yes	240	74.3
	No	83	25.7
Total		323	100

2.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이미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사용했던 도구를 연구의 성격에 맞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개인적 특성 4문항, 자기주도학습 22문항, 취업준비행동 38문항과 군 복무 경험 유무를 통해 군대를 다녀온 학생들에게 군대에서의 자기개발에 대한 문항 5문항 등 총 69문항으로 이루어졌다.

2.2.1 개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은 학년(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공(인문·사회계열, 사범계열, 자연·공학계열, 약·의학 및 간호계열, 예·체능계열), 대학소재지(수도권, 비수도권), 군 복무 유무(있다, 없다) 등 보기에서 표기하도록 명목 척도의 형태로 구성하여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2.2.2 자기주도학습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L. Guglielmin(1977)[6]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 검사도구(SDLRS: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150명의 대상자에게 pilot test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32문항으로 정리하여 사용한 김기홍(2019)의 연구[7]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는데, L. Guglielmin(1977)[6]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척도가 많은 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성이 확보되었지만 문항

수가 많고 중복되는 문항들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기에 요인분석을 통해 22개 문항으로 축소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으며, 자기개념에 해당하는 문항은 부정적 질문으로 역 채점을 하였기에 모든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2.3 취업준비행동

본 연구에서는 취업준비 대학생의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취업준비행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G. Blau (1994)가 연구한 Job Search Behavior에 관한 선행연구[8]를 기초로 수정한 김서리(2018)[9]의 질문지를 적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38문항, 5개의 하위 요인(공식적인 취업정보 탐색, 비공식적인 취업정보탐색, 학교의 정규과정을 통한 예비적 취업준비행동, 학교의 비정규과정을 통한 예비적인 취업준비행동, 본격적인 취업준비행동)로 재구성되었다. 각 항은 Likert 5점 척도로(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2.2.4 군 복무 시 자기개발

군 복무 시 자기개발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언론에 보도된 사병들을 위한 자기개발 지원내용[2]을 확인하여 자기개발정도, e-learning학습정도(없다, 2시간 미만, 2시간-5시간 미만, 5-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원격대학강좌 취득학점(없다, 3학점 미만, 4-6학점 미만, 7학점 이상), 국가기술자격 취득유무, 자기개발비용 지원유무(있다, 없다) 등 본 연구에 맞게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2.3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내용타당도는 교수 2인이 조사도구의 구성내용과 문항이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가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이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한 설문으로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구성타당도는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 3과 같다.

Table 2. Factor analysis of self-directed learning

	self-directed learning				
	time management	passion	accepting liability	self-concept ion	openness
I 12	.851	.168	.118	-.016	-.056
I 9	.791	.259	.058	.085	.140
I 13	.781	.234	.153	.123	.038
I 19	.603	.022	.085	-.084	.330
I 22	.538	.159	.274	.064	.254
I 4	.236	.738	.235	.086	.219
I 1	.226	.732	.209	.003	.248
I 15	.284	.646	.337	.072	.206
I 16	.279	.613	.389	.104	.212
I 2	.285	.545	.059	.029	.526
I 18	.057	.013	.727	.022	.338
I 21	.134	.240	.690	.037	.282
I 14	.176	.334	.660	-.002	.019
I 20	.283	.336	.566	.038	.080
I 5	.017	-.162	.111	.799	-.002
I 6	.272	.167	-.009	.766	.025
I 17	-.091	.087	-.075	.732	.247
I 3	-.064	.490	.083	.565	-.191
I 8	.219	.144	.173	.120	.716
I 7	.142	.203	.258	.098	.658
I 10	-.027	.239	.351	-.050	.493
reliability	.874	.823	.746	.720	.739
	KMO	.901	Bartlett :	2861.627	
eigenvalue	3.049	3.247	2.497	2.168	2.159
dispersion (%)	14.520	15.461	11.889	10.326	10.279
cumulative(%)	14.520	29.980	41.870	52.195	62.475

Table 3. Factor analysis of job preparation behavior

	job preparation behavior				
	full-scale job preparation	non-official search	official search	regular preliminary job behavior	preliminary job behavior
I 34	.784	.052	.173	.165	.219
I 35	.775	.173	.096	.066	.259
I 36	.740	.263	.181	.174	.130
I 38	.665	.176	.151	.125	.222
I 33	.579	.015	.486	.052	.009
I 31	.529	.039	.505	.403	-.106
I 32	.518	.143	.295	.483	.020
I 37	.493	.387	-.050	.144	.446
I 7	.476	.234	.188	.276	.415
I 17	.141	.724	.158	.130	.229
I 10	-.033	.649	.070	.127	.272
I 11	.110	.630	.051	.263	.238
I 14	.399	.598	.243	.054	-.158
I 12	.320	.594	-.065	.317	.186
I 15	.433	.556	.193	.110	.047
I 16	.209	.526	.221	.016	.102
I 13	.100	.515	.141	.480	-.021
I 9	-.195	.507	.218	.264	.152
I 19	.422	.482	.315	-.017	-.120
I 2	.112	.249	.697	.034	.228
I 1	.077	.256	.679	.060	.151
I 5	.204	.205	.571	.301	.274
I 26	.502	.090	.526	.085	.054
I 4	.312	.119	.517	.203	.075

I 30	.232	.144	.205	.711	.032
I 28	-.013	.186	.013	.695	.157
I 29	.327	.188	.355	.599	.104
I 27	.177	.181	-.062	.518	.443
I 3	.039	.301	.102	.063	.699
I 22	.235	-.009	.385	.240	.592
I 21	.269	.094	.394	.051	.569
I 18	.303	.424	.152	.033	.503
reliability	.890	.858	.779	.745	.749
KMO .924 Bartlett : 5326.995					
eigenvalue	5.134	4.348	3.384	2.917	2.664
dispersion(%)	16.045	13.586	10.576	9.116	8.325
cumulative(%)	16.045	29.631	40.207	49.323	57.649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자기주도학습 하위요인 중에 요인 부하량이 .4.5이하인 문항 1개 문항을 제거하였으며 선행연구와 같이 열정, 시간관리, 책임수용, 자아개념, 개방성 등 5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5개 요인의 누적분산율은 62.475, 신뢰도는 .874-.720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행동은 문항 중에 요인 부하량이 .4.5이하인 문항 5개를 제거하였으며 본격적 취업행동, 비공식적 탐색, 공식적 탐색, 정규적 예비취업행동, 비정규적 예비취업행동 등 5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고, 누적분산율은 57.648, 신뢰도 .922-.768로 나타나 각 설문 문항들을 측정하기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KMO값은 .890-.745로 나타났다으며 요인분석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검정치는 자기주도학습은 $\chi^2=2861.627(p=.0000)$, 취업준비행동은 $\chi^2=5326.995(p=.0000)$ 로 나타나 측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군대에서의 자기개발경험이 대학 복학 후 자기주도학습 및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통계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자기개발경험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는 독립 t-test, one way Anova를 사용하였다.

넷째, 군대에서의 자기개발이 대학 복학 후 자기주도학습 및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군복무 시 자기개발 경험이 있는 212명을 대상으로 중다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자기개발 문항 중 명목척도(있다, 없다)로 이루어진 항목은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유의수준 $\alpha = .05$ 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및 논의

3.1 개인적 특성과 군복무 시 자기개발에 따른 복학생의 자기주도학습

군대에서의 자기개발이 대학 복학 후 자기주도학습 및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것은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취업준비행동 등 변인들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첫째,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 5와 같다. 대학생들의 다니고 있는 대학

Table 4. Analysis result of self-directed learning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

		self-directed learning										
		passion			time management		accepting liability		self-conception		openness	
		N	M	SD	M	SD	M	SD	M	SD	M	SD
location of college	capital area	99	4.23	.544	3.44	.721	4.18	.549	3.41	.804	4.11	.611
	non-capital area	224	3.90	.706	3.29	.825	3.97	.660	3.22	.816	3.97	.659
	t-value		4.216		1.531		2.818		1.912		1.808	
	p-value		.000		.127		.005		.057		.072	
grade	2 grade	93	3.98	.664	3.34	.822	3.99	.572	3.31	.788	3.94	.677
	3 grade	111	4.00	.591	3.23	.725	4.03	.560	3.23	.749	4.02	.567
	4 grade	119	4.01	.763	3.43	.833	4.08	.747	3.30	.897	4.05	.694
	F-value		.054		1.689		.523		.270		.712	
	p-value		.948		.186		.593		.763		.492	
military service	yes	240	3.99	.689	3.31	.777	4.04	.646	3.26	.808	4.02	.661
	no	83	4.04	.646	3.41	.848	4.03	.607	3.32	.840	3.97	.607
	t-value		-.592		-1.045		.081		-.573		.677	
	p		.554		.297		.936		.567		.499	

$\alpha < .05$

소재지에 따른 자기주도학습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자기주도학습 하위요인 중 '열정', '책임수용'요인에서 수도권 학생들(M=4.23, 4.18)이 비 수도권 학생들(M=3.90, 3.97)보다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학년과 군 복무 유무에 따른 자기주도학습은 하위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군 복무 시 자기개발 정도에 따른 자기주도학습은 '열정', '시간관리', '책임수용', '자아개념', '개방성' 등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증결과 '열정', '시간관리', '개방성'에서 자기개발 경험이 '없다'(M=3.70, 3.06, 3.92, 3.90)와 '2시간 미만'(M=3.79, 3.11, 3.88, 3.15, 3.88)인 그룹보다 '8시간 이상'그룹(M=4.36, 3.66, 4.20, 3.49, 4.26)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군 복무 시 자기개발에 투자한 시간이 많을수록 자기주도학습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군대에서의 자기개발 경험이 복학 후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소양인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정원(2015)에 의하면 군 복무 중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한 병사집단에서의 목표관리와 자아존중감, 군 생활만족도가 실시하지 않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군 복무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병사들은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면서 서로 간의 선의의 경쟁도 생기게 하면서 자기개발을 더 알차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5]. 이민수(2012)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결론을 얻고 있다[3]. 이와 같이 군 복무 중의 자기개발이 군 복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 제대 후 대학에 복학하여 대학의 학업수행에 중요한 자기주도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군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군 제대 후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하여 자기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자기개발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장려하고 자기개발의 여건을 더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Table 5. Analysis result of self-directed learning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

		self-directed learning											
		passion			time management			accepting liability		self-conception		openness	
		N	M	SD	M	SD	M	SD	M	SD	M	SD	
self-development during military service	0	27	3.70	.829	3.06	.860	3.92	.871	3.13	.983	3.90	.914	
	under 2 hrs.	96	3.79	.712	3.11	.720	3.88	.679	3.15	.689	3.88	.626	
	2-5 hrs.	55	4.09	.632	3.46	.743	4.17	.531	3.25	.885	4.08	.599	
	5-8 hrs.	21	4.26	.464	3.50	.640	4.30	.453	3.61	.800	4.24	.538	
	over 8 hrs.	40	4.36	.453	3.66	.796	4.20	.523	3.49	.791	4.26	.614	
	F-value			7.904		5.631		3.845		2.502		3.411	
	p-value			.000		.000		.005		.043		.010	
			scheffe a, b(e		a, b(e						b(e		
e-learning study during military service	0	174	3.93	.709	3.19	.760	3.97	.664	3.31	.760	4.02	.654	
	under 2 hrs.	42	4.23	.590	3.63	.799	4.25	.541	3.04	.976	4.15	.651	
	2-5 hrs.	15	3.91	.623	3.46	.493	4.05	.662	3.36	.687	3.66	.712	
	5-8 hrs.	2	3.33	.235	3.50	.424	4.12	.883	2.50	.353	3.16	.235	
	over 8 hrs.	6	4.33	.623	3.93	.960	4.37	.518	3.37	1.126	4.33	.516	
	F-value			2.523		4.188		1.937		1.535		2.761	
	p-value			.042		.003		.105		.193		.028	
			scheffe a < b										
gaining credits during military service	0	215	3.97	.691	3.27	.767	4.01	.646	3.29	.777	4.03	.649	
	under 3 credits	15	4.28	.509	3.65	.812	4.35	.441	3.15	1.025	4.17	.615	
	4-6 credits	7	3.45	.590	3.31	.302	3.82	.812	2.78	.769	3.23	.498	
	over 7 credits	3	4.45	.629	4.10	1.227	4.43	.657	2.75	1.443	4.08	1.067	
	F-value			3.210		2.268		1.999		1.360		4.662	
	p-value			.024		.081		.115		.256		.003	
				a, b) c									
gaining national licence during military service	Yes	63	4.17	.622	3.49	.724	4.14	.526	3.34	.833	4.16	.647	
	No	176	3.92	.703	3.24	.786	4.00	.683	3.23	.797	3.97	.661	
	t-value			2.523		2.228		1.503		.936		1.952	
	p-value			.012		.029		.134		.350		.052	
receiving money for self-development during military service	Yes	33	4.26	.587	3.50	.777	4.21	.492	3.25	.876	4.23	.626	
	No	206	3.94	.697	3.28	.776	4.01	.666	3.27	.792	4.00	.660	
	t-value			2.459		1.555		1.633		-.143		1.888	
				p-value		.015		.121		.104		.886	
												.060	

p<.05

군 복무 시 e-learning 학습 정도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 차이는 '열정', '시간관리', '자아개념'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검정결과 '시간관리'요인에서 이러한 학습경험이 '없다'(M=3.19)그룹보다 '2시간 미만'(M=3.63)인 그룹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그룹 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 복무 시 자기개발에 투자한 시간이 많을수록 자기주도학습이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이 e-learning 학습 시간이 많을수록 자기주도학습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군 복무 시 원격강의 학점 이수 정도에 따른 자기주도 학습 차이는 '열정', '개방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증을 한 결과 '개방성'요인에서 학점 이수를 한 적이 없는 그룹(M=4.03)과 3학점 미만(M=4.17)보다 3-6학점 미만을 이수한 그룹(M=3.23)이 자기주도학습이 낮게 나타나 예상과는 다른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군에서는 군 복무 중 대학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대학의 수를 점차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 중에 대학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왕준 등(2012)에 의하면 육군병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학습관련 자기개발활동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18.6%)', '개인 관심분야'(16.3%), '어학공부(13.9%)', '대학 학점 취득(3.7)', '고졸검정고시 준비(1.0)' 순으로 나타났다[4]. 이는 군 복무 중인 사병들이 자기개발의 목표를 학점취득보다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전문성의 향상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군이 병사들의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군 복무 시 국가자격증 취득 유무에 따른 자기주도학

습 차이는 '열정', '시간관리' 요인에서 '있다'(M=4.17, 3.49)그룹이 '없다'(M=3.92, 3.24)그룹보다 높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군 복무 시 자기개발비용 지원유무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차이는 '열정'요인에서 '있다'(M=4.26)그룹이 '없다'(M=3.94)그룹보다 높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김왕준 등(2012)에 의하면 육군병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학습관련 자기개발활동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18.6%)로 나타났다[4]. 이와 같이 군 복무 중에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열정을 다해 준비하고 군 복무와 병행하여 자격증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관리를 잘 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군 복무 중의 자격증 취득 준비과정은 일반적으로 자기주도학습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군 복무 중에 자기주도학습 경험을 쌓은 학생들은 복학 후에도 자기주도학습을 잘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요즘은 사병의 월급이 예전보다 많이 인상되어 군이 지원하는 자기개발 비용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겠지만, 자기개발을 열심히 하고 지원금제도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사병들은 군 제대 후 복학하여서도 자기주도학습을 열정적으로 잘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개인적 특성과 군복무 시 자기개발에 따른 복학생의 취업준비행동

개인적 특성과 군 복무 시 자기개발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 7과 같다.

Table 6. Analysis result of job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

		job preparation behavior										
		official search			non-official search		regular preliminary job behavior		non-regular preliminary job behavior		full-scale job preparation	
		N	M	SD	M	SD	M	SD	M	SD	M	SD
location of college	capital area	99	2.84	.883	3.34	.785	3.32	.876	3.53	.914	2.73	.955
	non-capital area	224	2.93	.892	3.34	.751	3.36	.848	3.29	.826	2.60	.940
	t-value			-.824		.013		-.354		2.311		1.090
	p-value			.421		.989		.723		.021		.277
grade	2 grade	93	2.78	.922	3.17	.846	3.22	.872	3.11	.929	2.33	.924
	3 grade	111	2.86	.748	3.38	.685	3.42	.830	3.37	.778	2.53	.853
	4 grade	119	3.03	.9	3.43	.740	3.39	.862	3.56	.831	2.99	.939
	F-value			2.130		3.300		1.615		7.313		15.068
	p-value			.121		.038		.201		.001		.000
	scheffe					a < c				a < c		a, b < c
military service	yes	240	2.90	.851	3.35	.730	3.36	.843	3.40	.824	2.65	.922
	no	83	2.91	.996	3.30	.827	3.31	.895	3.27	.954	2.61	1.011
	t-value			-.129		.513		.424		1.228		.390
	p-value			.898		.608		.672		.220		.607

p<.05

대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소재지에 따른 취업준비 행동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취업준비행동 하위요인 중 '비정규적 예비취업행동'에서만 수도권 학생들(M=3.53)이 비수도권 학생들(M=3.29)보다 높은 것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취업준비행동 하위요인 중 '비공식탐색', '비정규적 예비취업행동', '본격적 취업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증을 한 결과 2학년(M=3.17, 3.11, 2.33)보다 4학년(M=3.43, 3.56, 2.99)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계웅 등(2016)[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는 대학생들의 학년별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분석결과, 재학 중 직장경험(아르바이트, 현장실습, 인턴십 등), 어학연수 경험, 취업활동 참여, 직업관련 교육/훈련경험과 자격증 취득 등이 학생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비율이 높아져 취업에 대한 준비를 점점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군 복무 유무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은 하위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윤미 등(2019)[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는 취업준비행동 영역에서 초급 부사관과 대학생 간 인식의 차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즉, 취업을 준비하는 방법상에 있어 부사관 집단의 특징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본인에게 주어진 여건(근무환경, 시간, 제도 등)에서 대학생집단과 비슷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였다.

군복무 시 자기개발정도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은 '비공식탐색', '정규적 예비취업행동', '비정규적 예비취업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증을 한 결과 '비정규적 예비취업행동'에서 자기개발경험이 '2시간 미만'(M=3.26)인 그룹과 '8시간 이상'(M=3.75)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더불어 군복무 시 자기개발에 투자한 시간이 많을수록 '비정규적 예비취업행동'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군대에서의 자기개발경험이 복학 후 대학생

Table 7. Analysis result of job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

		job preparation behavior											
		official search			non-official search		regular preliminary job behavior		non-regular preliminary job behavior		full-scale job preparation		
		N	M	SD	M	SD	M	SD	M	SD	M	SD	
self-development during military service	0	27	2.78	.939	3.04	.849	3.36	.912	3.16	.903	2.67	.987	
	under 2 hrs.	96	2.83	.795	3.21	.634	3.16	.708	3.26	.751	2.56	.820	
	2-5 hrs.	55	3.01	.885	3.51	.833	3.50	.908	3.40	.858	2.76	1.059	
	5-8 hrs.	21	3.11	.947	3.55	.539	3.36	.937	3.69	.717	2.77	.808	
	over 8 hrs.	40	2.86	.833	3.54	.739	3.63	.880	3.75	.817	2.65	.981	
	F-value			.898		3.904		2.778		3.972		.542	
	p-value			.466		.004		.028		.004		.705	
scheffe									b < e				
e-learning study during military service	0	174	2.76	.804	3.25	.722	3.25	.847	3.28	.822	2.47	.870	
	under 2 hrs.	42	3.27	.915	3.56	.706	3.55	.708	3.65	.747	3.09	.851	
	2-5 hrs.	15	3.31	.728	3.66	.643	3.71	.839	3.74	.592	3.10	.673	
	5-8 hrs.	2	3.75	.353	4.05	.070	4.25	1.060	4.10	.707	4.38	.549	
	over 8 hrs.	6	2.95	1.111	3.68	1.126	3.91	.970	4.00	1.088	2.98	1.532	
	F-value			4.829		3.195		3.269		3.850		7.539	
	p-value			.001		.014		.012		.005		.000	
scheffe				a < b				a < b					
gaining credits during military service	0	215	2.86	.844	3.30	.728	3.31	.820	3.36	.814	2.59	.881	
	under 3 credits	15	3.05	.835	3.78	.647	3.75	.823	3.62	.810	2.96	1.063	
	4-6 credits	7	3.07	.449	3.28	.606	3.50	1.030	3.57	.803	3.39	.821	
	over 7 credits	3	4.37	.829	4.32	.780	4.68	.473	4.50	.663	4.05	1.261	
	F-value			4.190		4.414		4.732		2.944		5.755	
	p-value			.006		.005		.003		.034		.00	
	scheffe				a < d				a < d				
gaining national licence during military service	Yes	63	2.92	.926	3.65	.720	3.50	.858	3.64	.861	2.81	.991	
	No	176	2.89	.827	3.24	.719	3.31	.837	3.31	.795	2.59	.893	
	t-value			.271		3.837		1.556		2.705		1.566	
	p-value			.787		.000		.121		.007		.119	
	scheffe				a < d				a < d				
receiving money for self-development during military service	Yes	33	2.90	.782	3.35	.866	3.53	.847	3.76	.865	2.73	1.006	
	No	206	2.89	.865	3.34	.717	3.33	.836	3.34	.806	2.64	.912	
	t-value			.061		.069		1.266		2.717		.500	
	p-value			.951		.945		.207		.007		.618	
	scheffe				a < d				a < d				

α, .05

의 비정규적 예비취업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취업행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군복무 시 e-learning학습 정도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하위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사후 검증을 한 결과 공식탐색, 본격적 취업준비에서 e-learning학습 경험이 '없다'(M=2.76, 2.47)그룹보다 '2시간 미만'(M=3.27, 3.09)인 그룹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그룹 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 복무 시 자기개발에 투자한 시간이 많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이 8시간 이상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e-learning학습 시간이 많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군 복무 시 학점 이수 정도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차이는 5개 하위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증을 한 결과 이수를 한 적이 없는 그룹보다 7학점 이상을 이수한 그룹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3 군복무시 자기개발 경험과 자기주도학습, 취업준비행동과의 관계

3.3.1 상관관계분석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하위요인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요인들이 .6이하의 상관관계를 보여 각 변인들이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3.2 군 복무 시 자기개발이 자기주도학습과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군 복무 시 자기개발이 복학생의 자기주도학습과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9와 같이 군 복무 시 '자기개발 정도'가 자기주도학습($\beta=.31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주도학습

Table 8.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1	2	3	4	5	6	7
1. self-development during military service	1						
2. e-learning study during military service	.203**	1					
3. gaining credits during military service	.032	.532**	1				
4. gaining national licence during military service	.175**	.030	.055	1			
5. receiving money for self-development during military service	.184**	.093	.136*	.224**	1		
6. self-directed learning	.355**	.092	-.033	.158*	.118	1	
7. job preparation behavior	.141*	.289**	.275**	.158*	.049	.429**	1

* $p<.05$, ** $p<.01$

Table 9. Effect of self-development during military service on self-directed learning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of students who returned to university

self-development experience during military service	job preparation behavior							
	self-directed learning				job preparation behavior			
	B	β	t	p	B	β	t	p
	3.317		30.124	.000	2.520		17.316	.000
1. self-development during military service	.137	.315	4.707	.000	.045	.078	1.166	.245
2. e-learning study during military service	.039	.068	.886	.377	.135	.179	2.337	.020
3. gaining credits during military service	-.066	-.075	-.989	.324	.198	.170	2.242	.026
4. gaining national licence during military service	.104	.093	1.418	.158	.201	.137	2.075	.039
5. receiving money for self-development during military service	.060	.044	.665	.507	-.060	-.034	-.503	.616
F			6.853				6.310	
R ²			.138				.128	

$p<.05$

의 예측 값은 전체변량의 13.8% 임을 알 수 있다.

복학생의 e-learning 수강정도($\beta=.179$), 취득학점정도($\beta=.170$), 자격증 취득유무($\beta=.137$)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예측 값은 전체변량의 12.8%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군 복무 유무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은 하위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요즘은 학생취업률이 대학입시와 대학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대학교들은 취업률 제고를 위해 대학당국 차원의 프로그램 및 취업전담부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것이 대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지만, 군부대는 특성상 곧 제대해야 하는 인원에 대한 취업전담 인력의 상담 및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고, 사병들은 대학생에 비하여 취업준비를 위하여 다소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군 복무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고 군 복무 중 자기개발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군 복무 중의 자기개발이 대학복학 후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다. 그 중 자기개발도 그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자아인식, 자기관리 및 경력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자기개발의 요소 중 자아인식은 취업준비에서는 자기에게 맞는 진로결정을 하게 할 것이다. 자기개발을 했던 사람은 자기개발과정에서 자아인식능력이 향상될 것이고, 이것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게 만들 것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2,13]. 둘째, 자기개발에서 자기관리능력이 필요하고, 자기개발을 통해서 자기관리능력이 향상된다. 셀프리더십은 자기관리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종찬(2013)은 셀프리더십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셀프리더십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고한다[14]. 셋째, 자기개발의 요소인 경력개발 과정에서 수행한 각종의 프로그램 수행 경험과 그 결과 개발된 개인적 능력은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군 복무 중의 자기개발처럼 대학에서의 각종의 취업 및 진로지원프로그램의 참여가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다 [15-18]. 이상을 종합해볼 때 자기개발은 그 각각의 요소가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대학생이 군 복무 중 수행한 자기개발이 군 제대 후 대학에 복학을 한 후의 대학학업 수행과정에서의 자기주도 학습과 취업준비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 대상은 전국적으로 약 15개 대학의 2, 3, 4학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집락무선표집을 이용하여 323명을 표본을 추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였고, 요인분석, 빈도분석, 독립 t-test, one way Anova,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복무후 복학한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자기개발경험에 따른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검증결과, 대학소재지, 학년, 군 복무 시 자기개발정도, e-learning 수강정도, 원격강의 이수학점, 자격증취득 유무, 지원비용 유무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군 복무 후 복학한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자기개발경험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검증결과, 대학소재지, 학년, 군 복무 시 자기개발정도, e-learning 수강정도, 원격강의 이수학점, 자격증취득 유무, 지원비용 유무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군 복무 시 자기개발경험은 복학 후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및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 복무 중의 자기개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독려하여 군 복무 중인 사병이 '생산적인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병의 군 복무 중의 자기개발에 관하여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군 복무 중의 자기개발은 군 복무기간뿐만 아니라 군 제대 후에 대학에 복학해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병의 자기개발 지원정책은 더 확대되어야 하고, 군 당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건을 더 개선하고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여건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할 때에는 직접 자기개발을 하고 있는 사병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의견 수렴 대상은 현재 자기개발을 하고 있는 현역 사병뿐만 아니라, 이미 전역을 한 사병들과 아직 입대를 하지 않은 대학생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사병의 자기개발에 대하여 지휘관들은 이전보다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사병들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주며, 자기개발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군 입대 후 달라진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군 복무 기간을 단지 '지나가야 할 시간'으로 생각하는 사병들에게 군 생활의 적응과 제대 후 생활에의 대처를 위해서 군 복무 중 자기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자기개발을 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군 복무 중에 자기개발에 대하여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이나 그들의 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하여 군 복무기간이 '단절의 시간'이 아니라 생산적인 시간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하여 군 복무에 대한 불안과 부정적인 인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입대 예정자들이 군 복무 중 자기개발의 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게 하여 군 복무기간 동안 자기개발을 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병들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기관, 행정기관 및 군 간의 협력체계를 자기개발의 실질적 필요를 토대로 더 확대하고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군은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과 이 기관들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더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기개발 지원정책과 자기개발 실태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컨설팅을 받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착안하고 이를 토대로 자기개발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을 개선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 H. Yang. (2012). *Military reform in 2000s and relation between neo-liberal self-help and cultural reproduction through doing military service*,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2] Defense Media Agency. (2019. 11. 13.), Healthy Military Culture Makes Strong Army, *The Korea Defence Daily* [Online]. www.kookbang.dema.mil.kr.
- [3] M. S. Lee. (2012). *Study on Interrelationship between Self-Development during Military Service and Improvement of Combat Power*, Seoul, The Korea Military Academy Hwarang-dae Research Institute.
- [4] W. J. Kim, D. S. Cho & S. G. Kim. (2012). *Study on Support Plan of Cooperation between Civillians,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the Military for Self-Development of Military Personnel*. Seoul, The Korea Army Headquarters.
- [5] J. W. Lee. (2015). Study on the Effect of Self-Improvement Programs in Militar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 11-23. DOI : 10.14400/JDC.2015.13.1.11
- [6] L. Guglielmino & J. Paul. (1977).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SDLRS)*, Boca Raton, Florida: Guglielmino and Associates.
- [7] G. H. Kim. (2019).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Self-Directed Learning, Learning Flow, Academic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Key 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Daejin University, Gyeonggi.
- [8] G. Blau. (1994). Testing a Two-Dimensional Measure of Job Search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9, 288-312.
- [9] S. R. Kim. (2018). *The Effects of Career seek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Maturity, Career Barrier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Doctoral Dissertation, Kangnam University, Gyeonggi.
- [10] K. Y. Ji & J. Y. Han. (2016). A Study on the Comparative Study for the Four-Year Collegia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Grade Level : The case of C Univers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6), 33-41. DOI : 10.14400/JDC.2016.14.6.33
- [11] Y. M. Jeoun, Y. I. Chae & J. S. Hue. (2019). A Study of Recognition and differences between non-commissioned officer and university students as a career maturity for employment preparations behavior, employment stres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9(3), 1-23. DOI : 10.35273/jec.2019.9.3.001
- [12] J. U. Kim & S. S. Park. (2013).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6(3), 123-141.
- [13] J. H. Lee & S. H. Kim. (2018). The Effect of Satisfaction of the Major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14(2), 77-96.
- [14] J. C. Lee & A. J. Hong. (2013).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up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Employabil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6(1), 69-92.
- [15] M. K. Chung & S. R. Kim. (2013).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Goal Sett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relation of University's Career Development Programs and Employment,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9(2), 123-144.

- [16] J. C. Heo. (2013), Effect of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0), 356-364.
- [17] Y. M. Son. (2104), Effect of career education program using career portfolio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first or second year),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0(1), 229-252.
- [18] K. S. Lim. (2018), The Effectiveness of Employment Support Program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Employment Readiness Behavior, and Employment Possi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8(3), 177-193.
DOI : 10.21024/pnuedi.28.3.201809.177

조 상 혁(Sang-Hyeok Cho)

[정회원]



- 1985년 2월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법학사)
- 1989년 2월 :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1996년 8월 :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18년 2월 : 충남대학교 군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 1994년 3월 ~ 2019년 2월 : 우석대학교 법학과 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우석대학교 국방정책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국방정책, 군사법.
- E-Mail : hj95jh99@naver.com